

탈레반, 아프간 대통령궁 장악

“전쟁은 끝났다” 사실상 승리 선언 국영방송 장악한 뒤 대국민 담화 개방적이고 포괄적 정부 구성 천명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알자지라방송은 탈레반의 사령관들이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무장 대원 수십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탈레반 대원들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탈레반기도 게양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탈레반은 이날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한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알자지라방송에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고, 통치 방식과 정권 형태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우리는 주민과 외교 사절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모든 아프간 인사와 대화할 준비가 됐으며,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면서 15일 밤에는 곳곳에서 폭발음과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현지 방송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프간 1TV는 밤이 되자 수도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고, 외교관들과 아프간 관리들이 탈출을 위해 몰려간 공항 근처에서도 총격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한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이날 카불에서 80명의 부상자가 이송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탈레반은 대국민 담화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방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의 수하일 사힌 대변인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로 진입한 뒤 AP통신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힌 대변인은 아프간 대

통령궁에서 새 정부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AP통신은 이 계획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 BBC 방송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향후 수일간 아프간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탈레반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제를 해결 해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치국장인 바라다르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탈레반의 승리는 비교될 수 없는 위업이지만 아프간 통치의 진정한 시험은 권력을 손에 넣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라다르 국장은 탈레반의 승리는 신속했고 세계 그 어떤 상대도 대적할 수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탈레반 대변인은 허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서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 발표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여성 인권이 제약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아프간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현지 여성들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과거 탈레반 집권기(1996~2001년)의 ‘인권 암흑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영방송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 아라비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날 카불에서 아프간 국영 TV를 장악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프간인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 조직원들이 15일(현지시간) 수도 카불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장악한 모습.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이날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한 직후 국외로 도피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아이티 남서부 레카이에서 자동차 한 대가 전날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잔해에 깔려 부서져 있다. 아이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97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도 57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티 강진 피해 ‘눈덩이’... 1297명 사망

인명피해 계속 늘어날 듯

카리브해 아이티를 강타한 규모 7.2 강진의 사망자가 빠르게 불어나며 대형 참사로 확대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아이티 재난당국인 시민보호국은 전날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570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많아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민보호국은 “많은 이들이 실종 상태고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잔해 아래 깔려있다”고 전했다.

아이티에서는 전날 오전 8시 29분께 프리트루드 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아 아이티 전역은 물론 이웃 나라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다. 이튿날인 15일까지도 규

모 4~5의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진의 공포 속에 집 밖에서 일요일 아침을 맞았다. AFP통신은 사실상 아이티 전 국민이 바깥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다. 피해지역 병원들은 몰려드는 부상자들로 포화 상태가 됐다.

이번 지진 피해는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에 집중됐다. 당국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 1만3694채가 붕괴되고 1만3785채가 파손됐으며, 병원,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실상기상으로 열대성 저기압까지 아이티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도 우려된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진 그레이스가 16일 오후부터 아이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일본 731부대 제2대 부대장 “인체실험 인정”

중국, 미군에 제출 진술서 공개

인체실험 만행을 저지른 일본 관동군 731부대 부대장이 패전 후 미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세균무기(생화학무기) 사용 연구와 인체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731부대 범죄증거 전 시판(하일민 소재)의 전정민(金成民) 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31부대 부대장 기타노 마사지(北野政次·1894~1986) 중장의 진술서 사본을 처음 공개했다.

기타노 중장은 731부대 창설자 이시이 시로(石井巖) 중장에 이은 이 부대 두번째 부대장이다. 1942~45년 731부대에 재직했던 기타노는 미군의 심문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대 창설자 이시이 중장에 대한 사항, 부대 임무, 편제, 연구 성과, 세균무기 등 5개 부문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술했다고 전 관장은 전했다.

기타노는 전임자인 이시이 중장이 관동군 근무 명령에 없는 내용으로 연구했고, 부대원 일부를 조차해 비밀리에 세균무기 연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애초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나 나중에 국제인도주의 등을 위반한 세균무기 연구를 했고, 결국 ‘비밀부대’가 됐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기타노는 진술 때 처음에는 731부대의 범행이 일본의 국가 행위가 아니라 이시이 시로의 행위라고 말했고,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세균전 데이터 확보에 있음을 간파하고부터 많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기타노가 전시 일본 의학 및 의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이 확인된 것만 59편인데, 그중 최소 2편은 인체실험을 통해 작성한 것이며, 일부 논문에서는 인체 실험을 하고도 ‘원숭이’와 같은 용어로 은폐했다고 전했다. 기타노의 진술서 원본은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다. 기타노는 731부대 만행의 책임자임에도 패전 후 기소 및 처벌을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철수 발표 4개월 만에 아프간 함락...바이든 역풍 맞나

‘철수지지’ 국내 여론 변화 조짐 미국 국제사회 리더십도 ‘흔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한 것은 4개월 전이었다. 9·11 테러 20주년에 맞춰 아프간전에서 손을 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전문학적인 자원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을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 컸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야당인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아프간 철군 자체가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단추를 끼운 사안이라는 이유가 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체결했고, 미국과 동맹군을 조기 철군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철군 결정 발표 후 아프간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면서 국내 여론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최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프간 상황을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함락과 비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이공 함락은 미국 입장에서 역사상 최악의 굴욕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아프간 정부가 항복한 15일(현지시간) “이곳은 명백하게 사이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아프간 철군이 제2의 사이공 함락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레반의 아프간 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 빼어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귀환’을 기치로 내걸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재건을 선언했지만, 아프간 철수와 이후 상황은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장 마리 게노 켈럼비야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와 아프간에서의 대실패 이후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이 외부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냉소적이며 국수주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